

##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분석 : 분석모형의 구축과 확산효과의 측정

안승국

한국의국어대학교 지역연구전략개발팀 연구교수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민주주의 확산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으로서 확산효과의 존재 여부와 확산변수의 규명을 위한 탐구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공간적 확산효과를 측정했다. 또한 확산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을 설명하였다. 본 논문의 가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는 인접 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부분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첫째, 민주화 내지는 체제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공간적 확산의 요인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했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있어서 대내외적 변수들을 규명하고 확산효과에 대한 가설을 정립했다. 셋째, 계량적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민주주의 확산효과를 측정했다. 넷째, 동아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산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의 구축이 지역차원에 있어서 갖는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제시했다.

◆ 주제어: 공간적 확산, 확산효과, 인접효과, 민주화, 동아시아

### 1. 서론: 공간적 확산의 지역적 맥락

공간적 확산 또는 파급의 문제는 정치학 연구의 다른 주제들처럼 현실 변화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이른바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주의 제3의 물결의 흐름은 정치사회현상의 원인을 분석사례 내부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외부까지 고려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 확산연구에 있어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들 중의 하나는 민주주의 확산이다.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남부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에 이은 1980년대 말 아시아와 동유럽의 체제변동은 확산연구의 중심주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확산연구들은 공간적 확산의 요인을 규명하고 그것의 효과가 지역 내 국가의 민주화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지역 내에서의 민주화에 대해 공간 의존적 가설을 검증함으로써 확산효과의 인과적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은 민주화를 도미노 현상으로 간주하고 지구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

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정치적 산물로서 간주되고 있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연구는 지리적으로 군집된 국가들 간에 민주주의의 수준 차이가 나타나며 이들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확산은 국가간 인접효과 또는 전염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민주주의의 확산 연구에서는 지역적 군집성을 고려한 분석이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차원의 확산효과는 공간적 고유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역 내 민주주의 확산효과를 측정하는 목적은 지역차원에서 대외적 요인들이 민주화에 미친 영향을 규명하고 이를 기존의 대내적 요인들과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유용한 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민주주의 확산효과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으로서 확산효과의 존재 여부와 확산변수의 규명을 위한 탐구적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대상은 동아시아 민주화의 출발점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필리핀 사례를 포함하여 한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5개 국가이며 분석기간은 1980년에서 2000년까지의 20년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민주화 내지는 체제변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공간적 확산의 요인을 고려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한다. 둘째,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에 있어서 대내외적 변수들을 규명하고 확산효과에 대한 가설을 정립한다. 셋째, 계량적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민주주의 확산효과를 측정한다. 넷째, 동아시아 사례 연구를 통해 확산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의 구축이 지역차원에 있어서 갖는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 II. 민주화에 대한 확산연구의 경향

민주주의에 대한 중심적인 연구경향은 민주화의 선행조건의 탐색과 과정의 역동성에 초점이 맞추어졌다.<sup>1)</sup> 기존의 연구들은 민주주의를 초래하는 조건들을 교차국가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사회경제적인 독립변수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일반모형을 구축하여 민주화를 설명하고 전반적인 민주화의 추세를 예측하고자 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적 요인들 중의 하나는 경제성장이며 이것은 중산층의 확산 및 교육수준의 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1) 이러한 분류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상관성을 강조하는 시각(민주주의의 발전과 유지에 있어서 규범 및 가치와 같은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Almond and Verba, 1963; Putnam, 1993; Muller and Seligson, 1994), 민주화에 대한 특정 계층이나 계급의 영향을 강조하는 시각(Moore, 1966; Rueschemeyer, Stephens and Stephens, 1992), 체제이행에 있어서 엘리트의 협약을 강조하는 시각(O'Donnell, Schmitter and Whitehead, 1986; Przeworski, 1991; Collier and Norden, 1992: 229-244; Mainwaring, 1992)으로 세분될 수 있다. 각 시각들은 상이한 전제와 가정에 따라 다양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재적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고 외재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립셋(Lipset, et al., 1993)은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해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간의 비선형관계를 검증하였다. 경제적 요인 외에 식민지 경험, 종교와 같은 요인들이 영향력이 있다고 제시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요인이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른바 경제발전-민주화가설의 통계적 검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주화의 독립변수들을 특정 사례의 내적 요인에 한정시킴으로써 이른바 확산의 문제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

기존의 연구들과 같이 특정 국가의 민주화에 대한 인과적 분석에 있어서 내적 요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인과관계를 과장하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내적 요인을 강조했던 립셋(Lipset, et al., 1993) 역시 민주주의로의 변화 또는 권위주의의 붕괴를 초래하는데 있어 확산 내지는 전염효과가 작용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연구 차원에서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역 내 국가들의 민주화가 지리적 군집성을 보이는 원인이 유사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특징뿐만 아니라 유사한 외적 영향 때문이라는 가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적 차원에서의 확산연구는 지역적 맥락이 민주화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다. 따라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요인들을 규명하면 현상발생의 지역간 맥락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적으로 군집을 이룬 특정 유형의 사례들은 내적 조건들과 인접사례로부터의 눈덩이 효과 또는 전염효과에 의해 다른 지역의 사례들보다 민주화가 촉진되거나 지체될 수 있다. 인접국가에 있어서의 내적 요인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민주화에 유사한 영향을 미친다.

헌팅턴(Huntington, 1991)은 “민주화의 물결”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민주주의의 지구적 확산을 논의하였다.<sup>2)</sup> 그는 1970년대 중반 이후의 민주화 이행의 원인과 역동적인 과정을 분석하면서 민주화가 각기 그 사회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전개되면서도 지구적인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였다. 헌팅턴은 1974년 포르투갈의 민주화 이행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197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는 다시 한 번 민주화의 물결로 인해 유럽,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에서 약 30여 개 국가가 다시 민주주의로 복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헌팅턴은 특히 민주화의 물결에 있어 초기 이행들의 ‘눈덩이효과(snowballing)’ 또는 ‘시위효과’에 주목하였다.<sup>3)</sup>

2) 헌팅턴 이후 많은 연구들은 이른바 ‘물결’이 세계사의 중대사건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예를 들어 민주화의 제 2의 물결은 2차대전의 종전, 제 3의 물결은 냉전 종식의 분기점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권위주의의 제 1의 물결은 양차대전 사이, 제 2의 물결은 탈식민화 이후에 나타났다고 주장한다(O’Loughlin, et al., 1998).

3) 헌팅턴은 제3의 물결이 초래된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성과에 의존해왔던 권위주의 체제의 경제적 실패에 기인되는 정당성 위기, 둘째, 생활수준향상, 교육기회증대, 도시중간계급을 급속하게 증대시킨 1960년대의 유례없는 경제성장, 셋째, 가톨릭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 넷째, 유럽공동체, 미국과 소련의 정책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을 분석한 기존의 연구들은 민주주의의 지역적 확산 효과가 존재한다는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강화시키는 지역적 요인은 지역적 확산효과 또는 공간적 고유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강력한 양적(+) 확산효과를 가진 지역으로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이며, 음적(-) 확산을 보인 지역은 인도양 도서국가군이었다. 특히 석유수출국기구(OPEC)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입국이 보여준 유사한 이행관계는 지리적 공간에 있어서 확산효과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스타(Starr, 1991)는 기존의 전쟁확산, 혁신확산연구의 방법들을 종합하여 공간적 확산의 존재를 지구적 수준, 지역적 수준, 인접효과를 의미하는 접경국가적 수준에서 각기 다른 분석모형을 통해 확산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프리덤 하우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에 대한 자유도를 재분류하여 통계모형을 사용해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지구적 시위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는 인접국가의 체제이행이 연구대상국가의 민주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제시했다. 스타는 체제이행이 군집성을 이루어 발생한다는 것과 연구대상국가의 인접국들이 이전에 민주화를 경험한 경우 체제이행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세보르스키 등(Przeworski, et al., 1996)은 인접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이 높고 민주주의 국가의 수가 많을 경우 민주주의체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이와 같이 지역적 차원의 확산연구는 어떤 지역 내에 있는 국가들이 보다 민주적인지 또는 덜 민주적인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용성이 있다.

올로그린 등(O'Loughlin, et al., 1998)은 지구적 차원에서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여 공간적 확산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즉 그들은 폴리티(Polity III) 자료를 사용하여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하고 민주주의 확산과정의 공간적, 시간적 규칙성과 특이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치체제의 성격과 수에서의 변화유형을 분석하였다. 올로그린 등은 지구적 차원에서 국가들의 민주주의 점수가 강한 군집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규명하였다. 이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상 국가들이 인접국가들과 유사하게 변화되는 확산의 경향이 존재함을 입증하였다.<sup>4)</sup> 올로그린 등은 첫째, 민주주의는 국내적 요인에 의해서 수립되는가 또는 국제적 요인들을 통해서 성립하는가? 둘째, 민주주의는 확산효과를 통해서 파급되는가 또는 전지구적 과정을 통해서 확대되는가? 셋째, 민주주의는 대규모로 확산되는가 또는 부분적으로 확산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주의의 확산현상을 시공간적으로

변화 다섯째, 눈덩이효과(snowballing) 또는 시위효과이다.

4) 올로그린 등(O'Loughlin, et al., 1998)은 이러한 결과를 지역적 확산효과로 간주하며, 신도철(Shin, 1994)은 지역적 학습효과로 지칭한다. 이와 같이 지역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을 분석한 연구들은 지리적 근접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을 분석한 연구로는 스타(Starr, 1991), 스타와 린드보그(Starr and Lindborg, 2003) 등이 있다.

추적했다(O'Loughlin, et al., 1998: 8-9).

브링스와 코페지(Brinks and Coppedge, 2001)는 기존 확산연구의 전제를 수용하면서 의사소통의 통로와 국가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하는 가설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확산현상을 지구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이들은 다양한 확산유형을 정의하고 '제3의 물결'과 그 이후의 시기(1973-1996년까지)에 대해 지구적 자료를 사용하여 확산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국가들이 지리적으로 근접한 이웃 국가들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에서 확산의 유형에 대한 강력한 근거를 발견한다. 또한 경제발전이 민주화에 있어 다소 역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상관성을 단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의 연구는 유사한 다른 연구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기존의 예측과는 달리 인구, 경제, 영토, 생활수준에서 대상국가보다 우월한 국가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도 밝혀냈다.

### III. 확산효과 측정을 위한 분석모형의 구축

본 논문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공간적 확산효과를 측정한다. 또한 확산과정에서 어떠한 요인이 작용하는지를 규명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을 설명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의 가설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주화는 인접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영향에 부분적으로 관련된다는 것이다.

공간적 확산개념은 공간성의 두 가지 결정요소로 구분될 수 있다. 공간적 의존성은 한 국가의 요인이 다른 국가의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공간적 이질성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한 국가들 간의 다양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지역적 특성이다. 만일 공간적 이질성이 존재한다면 모든 지역은 고유성을 갖는 것이며 어떠한 일반모형도 구축할 수 없다. 그러나 공간적 의존성이 존재한다면 모든 지역들이 동일한 관계양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O'Loughlin and Anselin, 1991).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도 공간적 의존성과 공간적 이질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 즉, 지구적 차원에서 공간적 확산양상을 분석해 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공간의존성을 보일 수도 있으며 동아시아내의 하부지역간 공간적 이질성을 보일 수도 있다.

확산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모형은 전쟁, 정치적 불안정의 확산과 같은 순수하게 대외적인 현상들(Most and Starr, 1980; Siverson and Starr, 1990)이나 쿠데타와 같은 갈등의 국내적 형태에 대한 연구(Midlarsky, 1970, 1975; Li and Thompson, 1975)에 적용되어왔다. 최근의 연구들은 민주주의의 확산유형을 분석하고 확산요인을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석모형을 적용하고 있다(Starr, 1991; O'Loughlin, et al., 1998; Brinks and Coppedge, 2001).

민주주의 확산연구에 있어서 먼저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 확산의 지구적 유형 또는 지역적 유형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와 확산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스타(Starr, 1991)가 제시한 지구적, 지역적, 인접국가적 수준의 연구와 올로그린 등(O'Loughlin, et al., 1998)이 제시한 거시수준, 중범위수준, 미시수준에서의 연구는 국내적 변수들보다는 각 분석수준에서 설정될 수 있는 외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스타(Starr, 1991)는 기존의 전쟁확산, 혁신확산연구에 적용된 분석모형들을 종합하여 지구적 수준, 지역적 수준, 인접국가적 수준에서 각기 다른 모형을 통해 확산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그는 프리덤하우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수준을 재분류하여 포와송(Poisson) 및 수정포와송 모형을 사용해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가 지구적 시위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 특히, 그는 인접국가의 체제이행이 대상사례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상호작용 기회모형(interaction opportunity model)<sup>5)</sup>을 적용하였다. 올로그린 등은 지구적 차원 즉, 거시적 수준을 중심으로 지역적, 일국적 차원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분석틀로 확산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공간적 확산이 변화하는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시기별로 구분된 인접성 매트릭(contiguity metric)<sup>6)</sup>을 계산하여 공간적 확산을 측정했다.

브링스와 코페쥐(Brinks and Coppedge, 2001: 7-12)는 민주주의 확산을 분석하기 위해 체제변화의 양상, 체제변화의 시점, 의사소통의 통로, 지구적 또는 지역적 국가간 네트워크라는 네 개의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석모형을 구축하였다. 브링스와 코페쥐의 분석모형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수준에 기초한 자료를 사용하여 확산의 지구적 경향을 측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은 지구적 경향에 더해 대상 국가들의 변화가 특히 많이 나타난 시점을 선택하여 가변수들(dummy variables)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특정지역이 다른 지역들보다 더 많이 변화하거나 또는 덜 변화하는 경향들을 고려하여 지역적 가변수들을 분석모형에 포함시켰다. 브링스와 코페쥐의 분석모형은 지구적 차원에서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강대국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지역적 차원에서는 대상국가에 대한 인접 국가들의 영향력을 측정하였다.

본 논문에서 공간적 확산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인접효과모형이다. 공간적 의존성은 확산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들 중 하나이다. 공간적 의존성은 한 국가의 정치사회현상이 인접국가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부분적으로

5) 상호작용 기회모형은 인접국가의 이행(Bordering Governmental Transition: BGT)이 대상국가의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인접효과의 존재에 따른 이행여부를 유관표로 만들어 분석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었다(Starr, 1991: 371-373).

6) 인접성 매트릭은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국가를 연도별로 추가하면서 이들 각 국가의 국경을 기준으로 연관성 조항을 정리한 도표이다. O'Loughlin 등은 이를 위해 Arc/Info 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김형기·이상협·이은정, 2002).

관련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인접효과로 정의된다. 이러한 인접적인 관계로 인해 확산의 유형은 공간적 군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즉, 지역적 차원에서 확산은 인접국가의 구성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산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인접국가의 영향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공간적 분포는 확산의 지역적 유형 또는 지역적 군집성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최근의 연구에서 민주주의는 유럽과 북미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개발도상지역은 서구에 비해 협소하며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지역에서 무작위로 한 국가를 선택했을 때 인접국의 다수가 민주주의 체제인 경우 그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일 확률은 높았으며 인접국의 다수가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경우 그 확률은 매우 낮았다.

확산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확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또한 확산이 어떠한 경로로 진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확산변수를 포함한 분석모형을 구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확산요인들이 고려될 수 있다. 즉 인접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 인접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인접국가의 대중시위 또는 노사분규의 건수, 대상국가와 인접국가들의 민주주의 수준차, 대상국가와 인접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차 등이다.

헌팅턴(Huntington, 1991)이 제시한 바와 같이 특정 시기에 있어서 특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민주화를 추진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지역적인 확산효과를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진 국가들 사이에 확산효과의 영향이 있었다는 가설을 정립할 수 있으며 지역 내 국가의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나타나는 요인들의 시간적 순차를 통해 확산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된 확산요인은 인접국의 정치적 수준, 인접국의 정치문화, 인접국의 경제수준, 인접국의 집단행동 등이 있다. 따라서 지역 내의 확산효과를 측정하는 데에는 이러한 요인들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연구대상 국가의 민주화 과정 초기단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접국가들의 영향을 통해 국가간 확산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확산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특정 지역 내에서 체제이행의 시점을 비교하는 것은 공간적 확산뿐만 아니라 시간적 확산 경로를 규명할 수 있다.

확산모형은 특정 사례 내에서 표출되는 현상이 역내 사례들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을 상정함으로써 사례 내 변수만으로 구성된 통상적 인과모형의 적실성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재검증할 수 있다. 이러한 적실성의 재검증은 결국 지역연구에 있어서 지구적 내지는 일반적 모형의 지역적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분석 모형의 설명력을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전개되는 상호확산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표준 최소자승(Ordinal Least Square: OLS) 회귀분석을 이용한 분석모형이다.<sup>7)</sup> 회귀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접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경제발전 수준이 대상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인접효과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베타값( $\beta$ )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beta_3 X_3 + \beta_4 X_4 + \varepsilon_i$$

확산효과의 존재여부는 회귀모형에 있어서 공간적 자동회귀(spatial autocorrelation)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규다중회귀모형은 오차항간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확산효과가 존재한다면 그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상호간의 공간적 근접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간적 자동회귀를 검사할 수 있고 이후 공간적 자동회귀는 독립변수로 설정되어 회귀모형을 재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석사례간의 확산현상을 공간적 자동회귀로 규정하고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면서 시계열 자료들을 분석할 때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적 자동회귀와 교차국가적 자료들의 공간적 자동회귀현상을 구분한다. 시간적 자동회귀만으로는 인접국가의 영향력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확산의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은 공간적 자동회귀가 된다. 그러나 공간적 자동회귀가 확산으로 고려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시간적 순차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정확한 확산경로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순차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IV.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효과 분석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 확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로 민주주의의 공간적 확산이라고 할 수 있는 양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민주화와 관련된 특정한 공간적 분포유형이 존재한다면 민주주의의 확산의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프리덤 하우스의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변화 지표<sup>8)</sup>와 각 국의 정치적 사건을 시기적으로 구분하면 민주화의 이행은 1985-86

7) 최소자승법은 오차항의 동분산성(homoscedasticity), 즉 오차항이 독립변수들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적용된다. 만일 오차항이 이분산성(heteroscedasticity)을 갖는다면 자동 회귀와 마찬가지로 추정회귀계수의 표준오차 크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설의 검정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분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소자승법보다는 각 관측치에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가중 최소자승법(Weighted Least Squares: WLS) 또는 일반 최소자승법(Generalized Least Squares: GLS)을 적용하여 회귀모형의 왜곡을 방지해야 한다.

8) 이 글에서는 프리덤 하우스에 의해서 조사된 the Gastil Index를 기초로 한다. The



년의 필리핀을 시작으로 한국-대만-태국-인도네시아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간적 순차에 따르면 필리핀-한국-대만이라는 하나의 하부 지역군과 약 5년의 시간적 차이를 보이는 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의 또 다른 지역군으로 구분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적 분포가 나타난다.<sup>9)</sup>

물론 이와 같은 시간적 순차와 공간적 분포양상을 직접적인 확산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른 민주주의의 공간적 분포가 일정한 군집성을 보일 때 지역 내 국가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한 확산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지역적 군집성이 지역에 고유한 확산요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각 국가의 내적 요인들에 의해 공간적으로 일정한 분포를 보이는 것인지는 또 다른 검증의 대상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확산연구는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확산현상 내지는 확산효과를 확인하는 것과 그러한 현상을 발생시키는 변수의 규명이라는 이중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간적 순차에 기초해서 동아시아 민주주의의 분포를 관찰해보면 시간적 순차가 지리적 근접성과 특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필리핀, 한국, 대만 중에서 민주화가 가장 늦은 대만의 경우 복수정당제가 인정되고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1989년과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총통직선제를 약속한 1990년을 민주화 이행의 중점으로 간주하고 태국이 군부정권의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민주헌법을 채택한 1995년을 민주화 이행의 중점으로 간주한다면, 양국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표 1>과 같이 대략 5년이 된다.

<표 1> 체제이행의 시간적 차이

	대만	필리핀	한국
태국	5년	9년	8년
인도네시아	9년	13년	12년

Gastil Index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는 7가지 점수로 측정된다. 정치적 권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행해지고 있는지, 국민들이 경쟁하는 정당을 조직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소수 그룹이 정책결정과정에 합리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측정되는 시민적 자유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디어가 있는지, 정치적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는지, 종교의 자유가 있는지 하는 것들이다.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를 비교하는 데에 모범적인 지표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9) 국가별로 1~2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약 5년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물론 5년의 기간동안, <표 2>에서 태국의 경우와 같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변화가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표시된 기간 동안 태국에서도 다른 국가의 표시된 기간과 유사한 과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 기간의 선택은 타당성이 있다고 하겠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지리적 거리가 멀면 멀수록 민주화가 일어나는 시간적 차이도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고려하면 지리적 근접성이 확산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마다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점수는 상이하지만 이전보다 급격하게 점수가 낮아지는 기간을 구분해보면, 각 국가마다 약 5년의 기간을 상정해볼 수 있다.

<표 2>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수준변화

연 도	인도네시아			태국			대만			한국			필리핀		
	PR	CL	FR	PR	CL	FR	PR	CL	FR	PR	CL	FR	PR	CL	FR
1980-81	5	5	PF	3	4	PF	5	6	PF	5	6	PF	5	5	PF
1981-82	5	5	PF	3	4	PF	5	5	PF	5	6	PF	5	5	PF
1982-83	5	5	PF	3	4	PF	5	5	PF	5	6	PF	5	4	PF
1983-84	5	5	PF	3	4	PF	5	5	PF	5	6	PF	5	5	PF
1984-85	5	6	PF	3	4	PF	5	5	PF	5	5	PF	4	4	PF
1985-86	5	6	PF	3	4	PF	5	5	PF	4	5	PF	4	3	PF
1986-87	5	6	PF	3	3	PF	5	5	PF	4	5	PF	4	2	PF
1987-88	5	6	PF	3	3	PF	5	4	PF	4	4	PF	2	2	F
1988-89	5	5	PF	3	3	PF	5	3	PF	2	3	F	2	3	F
1989-90	5	5	PF	2	3	F	4	3	PF	2	3	F	2	3	F
1990-91	6	5	PF	2	3	F	3	3	PF	2	3	F	3	3	PF
1991-92	6	5	PF	6	4	PF	5	5	PF	2	3	F	3	3	PF
1992-93	6	5	PF	3	4	PF	3	3	PF	2	3	F	3	3	PF
1993-94	7	6	NF	3	5	PF	4	4	PF	2	2	F	3	4	PF
1994-95	7	6	NF	3	5	PF	3	3	PF	2	2	F	3	4	PF
1995-96	7	6	NF	3	4	PF	3	3	PF	2	2	F	2	4	PF
1996-97	7	5	NF	3	3	PF	2	2	F	2	2	F	2	3	F
1997-98	7	5	NF	3	3	PF	2	2	F	2	2	F	2	3	F
1998-99	6	4	PF	2	3	F	2	2	F	2	2	F	2	3	F
1999-00	4	4	PF	2	3	F	2	2	F	2	2	F	2	3	F
2000-01	3	4	PF	2	3	F	1	2	F	2	2	F	2	3	F

자료: Freedom House

PR: 정치적 자유 CL: 시민적 자유 NF: 부자유 PF: 부분적 자유 F: 자유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기간에 해당하는 각 국의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필리핀의 경우 1983년 8월 아키노 암살 사건을 계기로 마르코스 반대세력이 결집하기 시작하여 1986년 2월 국민봉기로 마르코스의 장기집권은 막을 내렸다(서경교, 2001: 271). 이어서 1987년 국민투표로 통과된 새로운 헌법에 따라 실시된 총선에서 아키노의 연합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신정부가 구성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1984년 정치활동 피규제자 286명이 해금되면서 야당 세력이 성장하여 1987년 민주화 시위에 의해 대통령직선제 헌법개정이 이루어졌다(안승국, 2001: 54-59).

대만의 경우 1986년 재야 세력을 대표하는 민진당이 결성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촉발되어 1989년 복수정당제 인정, 선거법 개정 등이 이루어졌다. 1990년에는 총통선거방식 개선을 요구하는 민진당, 학생, 시민들의 대규모 시위로 인해 리덩후이 총통이 민주화 일정을 밝히고 국시회의 소집을 약속하였다(안승국, 2001: 293). 태국의 경우 1992년 방콕 민주화시위로 군부의 영향 없는 추안 리빠이 수상이 취임한 이래 1995년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91년 군부정권이 채택한 헌법을 대체할 새로운 헌법이 통과되고 평화적 정부이양이 이루어졌다.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1996년 총선에서 야당세력이 집권당을 제치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1997년 야당의 공정선거를 위한 시위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한 폭동 등이 독재정권 타도시위로 이어지면서 1998년 수하르토 대통령이 사임하였다(안승국, 2003: 87-88).

이와 같이 각국의 민주화는 대체로 유사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민주화 과정을 연구한 오도넬과 슈미터의 연구(O'Donnell and Schmitter, 1986)와 쉐보르스키(Przeworski, 1991)의 연구에서 제시되는 민주화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장기 집권여당에 도전하는 민주화 야당세력의 성장과 그러한 세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민주화 시위로 시작해서 집권당의 붕괴 또는 전면적인 양보와 헌법개정과 새 정부의 구성이 이루어졌다.

<표 3>의 분석결과를 통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확산변수로서 '인접국 민주화 수준'이 '인접국의 발전수준'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민주화 수준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sup>10)</sup>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비중을 나타내는 인접국 민주화 수준의 회귀계수값은 0.43으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와는 달리 대만의 경우에는 인접국의 민주주의 수준보다 인접국 경제발전 수준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남아국가들의 경우 인접국 경제성장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국가들이 유사한 경제발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전에는 격차가 있었다고 해도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발전이 추구되면서 인접국의 경제적으로 인접국이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접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나 경제발전 수준은 고정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국가에 따라 변화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인접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이라는 확산변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과 인접국의 경제발전 수준의 영향력은 비교적 약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0) 본 논문에서 민주주의 수준은 프리덤하우스의 점수로 경제발전 수준은 국내총생산 성장률로 측정되었다.

&lt;표 3&gt; 동아시아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확산효과 분석

독립 변수	한국의 민주주의		대만의 민주주의		대만의 민주주의 (통합)	
	회귀계수	신뢰도	회귀계수	신뢰도	회귀계수	신뢰도
절편	0.842	0.696	4.164	0.000	3.541	0.014
인접국의 민주주의	0.430	0.012	0.239	0.132	0.230	0.123
인접국의 경제성장	0.534	0.003	0.725	0.000	0.739	0.000
R <sup>2</sup>	0.738	0.000	0.859	0.000	0.855	0.000

  

독립 변수	태국의 민주주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통합)	
	회귀계수	신뢰도	회귀계수	신뢰도	회귀계수	신뢰도
절편	6.694	0.001	-0.501	0.836	1.953	0.507
인접국의 민주주의	0.354	0.200	0.532	0.026	0.292	0.309
인접국의 경제성장	0.150	0.580	-0.103	0.640	-0.008	0.979
R <sup>2</sup>	0.210	0.135	0.262	0.075	0.083	0.479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과 대만의 경우 인접국의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민주주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특히, 대만의 민주주의 수준을 종속변수로 한 통합모형의 분석결과는 인접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으면 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아짐을 보여준다. 인접국 민주주의 수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회귀계수가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형을 고려할 때 인접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은 민주화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민주적인 인접국가가 존재하는 경우 국가들에서 체제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대체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회귀 분석 결과는 대상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경우 95%의 신뢰수준에서 인접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체제변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경제발전 수준의 민주화에 대한 영향력은 한국과 대만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95%의 신뢰수준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지만 태국과 인도네시아와 같은 동남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으며 상관관계도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이나 대만과 같은 동북아 국가들이 동남아 국가들보다 인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확산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함의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기존의 민주주의 확산연구들은 지리적 인접성을 제외하고는 지역 고유의 변수들을 중심으로 확산효과를 분석하고 있지는 않으며 확산효과를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지구적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 지역연구에 있어서 민주주의 확산연구들은 지구적 차원에서 확산현상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지역에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과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다. 올로그린 등(O'Loughlin, et al., 1998: 26)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사례로 하는 분석에서 지역 내의 헤게모니 국가, 여타의 지역기구들, 각 국 정치엘리트 사이의 상호연관성을 주요 변수로 제시하고 있다. 브링스와 코페취(Brinks and Coppedge, 2001)도 체제변화의 양상, 체제변화의 타이밍, 의사소통의 통로, 지역 내 국가간 네트워크를 확산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연구 차원에서의 민주주의 확산연구에는 이중의 과제가 부과된다. 하나의 과제는 지구적 수준에서도 타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 확산요인들을 규명하고 그 요인들에 대한 경험적 검증을 하는 것이고, 다른 과제는 지역적 차원에서 확산현상이 지역고유변수에 의해서 초래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만일 지역 내 사례에서 표출되는 현상이 사례 내 변인보다는 확산변인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더욱 크게 받는다는 경험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지역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즉, 지역 내 존재하는 확산현상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고 추적하는 작업은 그 자체가 지역연구를 특징짓는 고유한 연구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연구에 있어 민주주의의 확산을 대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명하는 것은 보다 유용한 분석틀을 적용하는 하나의 연구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형기·이상협·이은정. 2002. 「비교지역연구의 딜레마: 갈등의 문제와 해결방안의 모색」. 『지역 연구: 영역·대상·전략』. 서울: 형설출판사. pp. 73-108.
- 서경교. 2001. 「군부 권위주의체제 이후의 정치변동: 민주화 이행? 정체된 민주화?」. 서경교·김웅진 외. 『동아시아의 정치변동: 연구의 쟁점과 전략』.

- 서울: 인간사랑. pp.265-324.
- 안승국. 2001(a). 「대만의 민주화과정 분석: 정치행위자의 전략과 선택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집 2호. pp.283-299.
- \_\_\_\_\_. 2001(b). 「한국의 민주화와 선거정치: 11대 총선에서 14대 대선까지의 정치적 동학을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19권 1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51-70.
- \_\_\_\_\_. 2003.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체제변동의 정치경제: 금융위기와 신질서체제의 해체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21권 1호.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73-90.
- Almond, Gabriel A., and Sidney Verba. 1963. *The Civic Culture: Political Attitudes and Democracy in Five Nations*. Boston, MA: Little Brown.
- Bollen, Kenneth A. and Robert W. Jackman. 1985. "Political Democracy and the Size of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pp.438-457.
- Brinks, Daniel and Michael Coppedge. 2001. "Patterns of Diffusion in the Third Wave of Democracy." in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pp.1-43.
- Collier, D. and Deborah L. Norden. 1992. "Strategic Choice Model of Political Change in Latin America." *Comparative Politics* 24(2). pp.229-244.
- Crain, Robert L. 1966. "Fluoridation: The Diffusion of an Innovation Among Cities," *Social Forces* 44. June. pp.467-476.
- Cutright, D. Phillips. 1963. "National Political Development: Measurement and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9. pp.1299-1315.
- Freedom House. 2003. *Freedom in the World*.
- Huntington, Samuel P. 1991.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Li, R. P. Y., and William R. Thompson. 1975. "The 'Coup Contagion' Hypothesi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19. pp.63-88.
- Lipset, Seymour Martin, K. R. Seong, and J. C. Torres. 1993.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Journal* 16. pp.155-175.
- Lipset, Seymour Martin. 1994. "The Social Requisites of Democracy Revisite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1). pp.1-22.
- Mainwaring, Scott. 1992. "Transition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Theoretical and Comparative issues," in S. Mainwaring, Guillermo O'Donnell, and J. Samuel Valenzuela. eds. *Issues in Democratic Consolidation: The New South American Democracies in Comparative*

- Perspective*. Notre Dame: Notre Dame University Press. pp.294-341.
- Midlarsky, Manus. I. 1970. "Mathematical Models of Instability and a Theory of Diffusion,"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14. pp.60-84.
- Moore, Barrington Jr. 1966.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Lord and Peasant in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Boston: Beacon Press.
- Most, Benjamin A. and Harvey Starr. 1976. *Techniques for the Detection of Diffusion: Geopolitical Considerations in the Spread of Wa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Studies Association Convention, Toronto.
- \_\_\_\_\_. 1980. "Diffusion, Reinforcement, Geopolitics and the Spread of War,"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 pp.932-946.
- \_\_\_\_\_. 1990. "Theoretical and Logical Issues in the Study of International Diffusion," *Journal of Theoretical Politics* 2(4). pp.391-412.
- Muller, Edward N. 1988. "Economic Determinants of Democra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pp.966-982.
- Muller, Edward N. and Mitchell A. Seligson. 1994. "Civil Culture and Democracy: The Ques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8. pp.635-652.
- O'Donnell, Guillermo,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Transition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O'Loughlin John and Luc Anselin. 1991. "Bringing Geography Back to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s: Spatial Dependence and Regional Context in Africa, 1966-1978," *International Interactions* 17. pp.29-61.
- O'Loughlin John, Michael D. Ward, Corey L. Lofdahl, Jordin S. Cohen, David S. Brown, David Reilly, Kristian S. Gleditsch, and Michael Shin. 1998. "The Diffusion of Democracy, 1946-1994,"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88. pp.545-574.
- Przeworski, Adam. 1991. *Democracy and Market: Political and Economic Reforms in Eastern Europe and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zeworski, Adam, Michael Alvarez, José Antonio Cheibub, and Fernando Limongi. 1996. "What Makes Democracies Endure?," *Journal of Democracy* 7(1). pp.39-55.
- Przeworski, Adam and Fernando Limongi. 1997. "Modernization: Theories and Facts," *World Politics* 49. pp.155-83.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eschemeyer, Dietrich, Evelyne Huber Stephens, and John D. Stephens. 1992. *Capitalist Development and Democrac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iverson, R. M., and Harvey Starr. 1990. "Opportunity, Willingness and the Diffusion of War, 1816-1965,"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4. pp.47-67.
- Shin, Doh-Chull. 1994. "On the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A Synthesis and Evaluation of Recent Theory and Research," *World Politics* 47. pp.135-170.
- Starr, Harvey. 1991. "Democratic Dominoes: diffusion Approaches to the Spread of Democracy," *Journal of Conflict Revolution* 35(2). pp. 356-381.
- Starr, Harvey and Christina Lindborg. 2003. "Democratic Dominoes Revisited: The Hazards of Governmental Transitions, 1974-1996."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7(4). pp.490-518.

## Spatial Diffusion of Democracy in East Asia: Building an Analytic Model and Measuring Diffusion Effects.

**Ahn Seung-Gook**

*Research Professor of the Research Team for Developing Methodological Strategies  
in Comparative Areas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presents research that reveals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oral and spatial aspects of democratic diffusion in East Asia since the mid 1980s. This article provides consistent evidence of temporal cascading of democratic trends as well as spatial association of democracy. The analysis uses an exploratory approach to understand regional trends in democratization. This paper first considers some explanations as to why democratization process should be influenced by regional contexts and events in other states. This analysis then shows empirically, that distribution of democracy clusters spatially.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spatial clustering in democracy can not be accounted for by differences in domestic factors. This suggests that the regional contexts and neighboring effects play an important part in



democratization. The analysis addresses the existence of diffusion effects in regard to changes in degree of freedom based on yearly Freedom House data.

*Keywords: spatial diffusion, diffusion effect, neighboring effects, democratization, East Asia*